
미래를 다시 꿈꾸기: 한국과 글로벌 SF의 대안적 미래주의들*

노대원 (제주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세계화의 포스트휴먼 조건과 한국 SF
- II. 글로벌 SF와 대안적 미래주의들의 출현
- III. 사변적 아시아와 새로운 문화정치적 패권 경쟁
- IV. 세계문학으로서 한국 SF, 혹은 Korean Futurism의 조건

국문초록

영미권 중심의 SF 장르는 최근 아프로퓨처리즘, 걸프 퓨처리즘, 하와이 퓨처리즘 등 세계 각지에서 ‘대안적 미래주의들’의 출현으로 다양성이 강조된다.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비판으로 아시아 미래주의도 출현했다. 한편 중화미래주의는 서구 제국주의 비판인 동시에 기술 경제대국인 중국의 패권 담론이다.

한국 SF 또는 대안적 미래주의의 조건과 가능성을 탐색하며, ‘Korean Futurism’ 개념을 제안한다. 한국 미래주의에는 제국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섬세한 글로벌화가 요청된다. 한국 SF의 대안적 미래주의는 인류세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생태 SF와 슬라펑크 같은 새로운 사변소설 하위장르/운동 형식으로 나타난다. SF 미래주의들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제어: 대안적 미래주의, 사변소설, 아프로퓨처리즘, 아시아 미래주의, 중화미래주의, Korean Futurism, 고종석, 두나, 김아영, 포스트휴먼, 인류세, 생태 SF, 슬라펑크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4564)

1. 세계화의 포스트휴먼 조건과 한국 SF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은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국지적인 바이러스 질병의 유행이라고 간과했지만, 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지구를 휩쓸고 종식되지 않고 있다. 이미 팬데믹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이 시대의 '포스트휴먼 조건'(posthuman condition)이 유력한 설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도시, 사회, 정치를 포함한) 인간-아닌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망을 창조하는 지구적 상호 연계”¹⁾는 전세계 인류를 하나로 묶는다. 모빌리티 기술과 정보화 기술은 지구를 축소시키면서 동시에 인간과 자본, 심지어 정보와 바이러스의 이동까지 급가속시켰다. 기술적으로 매개된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포스트휴먼 조건이 국가와 지역 간의 상호 연결성을 극도로 높이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²⁾

한편 문화 영역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의 출현은 서구발 콘텐츠의 전세계 안방 시장 장악과 통일이라는 일방향적인 세계화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의 전세계적 인기는 서구와 전세계 문화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서사에 대한 각성과 향유의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마침 K-팝과 한류와 같은 문화 현상들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를 지속적으로 고무시키고 있었던 차였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서구 시장의 요구는 아시아 혐오를 비롯한 인종 혐오가 트럼프 시대 이후 극심해지고 있었던 것과는 상충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혐오와 배제가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요구가 서로 길항하고 서로의 존재 조건이 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 문화는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을 갖추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1) 로지 브라이도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56쪽.

2) 노대원·황임경,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102~103쪽.

극히 짧은 시간이 경과했지만,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당위와 희망은 세계 시장과 평단을 향한 문화적 콤플렉스와 인정 욕구³⁾를 넘어 또 다른 조건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휴고상 Best Dramatic Presentation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승리호>와 같은 SF 영화, <킹덤>과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좀비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과 같은 학원 퇴마물, 정보라의 소설집 『저주토키』처럼 세계 문화 시장에서 인기를 얻거나 호평을 얻은 텍스트들의 공통점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변 서사(speculative fiction) 또는 장르 서사라는 점이다. 하위 장르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서사들의 등장인물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로봇, 좀비, 유령을 포함한 비인간 포스트휴먼(nonhuman posthuman)이다.⁴⁾ 이들이 오락적 장르로서, 진지한 문학의 쇠퇴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는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소비/기술 자본주의 하에서 근래의 세계문학은 ‘글로벌화된 세계’의 가속화와 ‘(주류)문학의 쇠퇴’로 요약될 수 있다. 포스트휴먼 조건의 동의어로 포스트휴먼 근경이 쓰이는 것처럼, 인류세의 (전세계적, 나아가 전지구적, 즉, 행성적 차원의) 유사-디스토피아 또는 유사-아포칼립스적 조건은 이러한 상상문학 장르의 부상을 낳는 물질 토대이자 시대적 조건이다.⁵⁾ 멩티엔 선(Mengtian Sun)은 “세계문학이 작품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작품을 세계적으로, 그리고/또는 세계와 연결하여 바라보는 접근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⁶⁾ 그 점에서 각국의 SF들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하의 세계

3) 노대원,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세계라는 타자와의 대화를 위하여」, 『우리말글』 제71집, 우리말글학회, 2016, 411~434쪽.

4) 포스트휴먼의 대표적 범주에는 인공지능,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클론 등 기술공학적 발달에 의해 출현한 존재가 있다. 이외에도 근대 휴머니즘의 협소한 인간 개념에 의해 배제되었다가 인간 범주의 경계를 교란하는 존재들인 동물, 신, 악마, 괴물까지 포함될 수 있다.(노대원, 「길 위의 포스트휴먼 — 박미하일 소설 『예율리』의 포스트휴먼 디아스포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267쪽)

5) 노대원, 「포스트휴먼 (인)문학과 SF의 사변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제200호, 국어국문학회, 2022, 4쪽.

6) Mengtian Sun, “World Literature a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hinese Science Fiction”, *SFRA Review*, vol. 51, no. 2 (Symposium: Chinese SF and the World), 2021.

의 문제 즉, “빈부 격차의 확대, 환경 오염과 지구온난화, 이주(국가적, 국제적)와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예: 이민자 등)”을 다루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세계문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미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SF 문화와 연구의 최근 특징은 ‘지구화’와 ‘다양성’의 추구하고 확산이다. 점점 더 많은 비서구 작가들과 영어가 아닌 외국어 SF가 영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⁷⁾ 보디사트바 차토파디아이(Bodhisattva Chattopadhyay) 등이 이끄는 글로벌 미래주의(국제적 SF) 연구 프로젝트인 ‘CoFutures : Pathways to Possible Presents’(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문화연구 및 동양언어학과)⁸⁾ 역시 글로벌 SF 연구로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여성 작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SF 장르의 근대적 효시로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소설은 대체로 유럽-백인-남성 서사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엄밀한 자연과학과 기술이 중심이 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남성 영웅이 등장하는 존 W. 캠벨(John W. Campbell)식의 미국 SF가 이 장르의 전형이라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물론, 최근에 영어권 SF에서도 백인 중심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Racefail ‘09’와 ‘Puppygate’와 같은 일련의 논쟁이 벌어졌다.⁹⁾ Racefail ‘09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진행된 팬덤 토론이자 온라인 운동이었다. SF 장르에서 “인종차별적 재현과 비재현의 문제, 팬덤 속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적 언행에 대한 비난, 팬 픽션에서의 인종 스테레오타입 등 팬덤과 관련된 인종 논쟁의 전반”¹⁰⁾을 논의했다. Racefail ‘09가 주로 창작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Puppygate는 SF 출판,

(<https://sfrareview.org/2021/04/21/sinofuturisms-world-literature>, 2022년 9월 22일 접속)

7) 세릴 빈트·마크 볼드, 『SF 연대기』, 송경아 역, 허블, 2021, 474-480쪽.

8) <CoFutures> (<https://cofutures.org>, 2023년 1월 7일 접속)

9) Bodhisattva Chattopadhyay, “Manifestos of Futurisms”, *Foundatio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Science Fiction*, 50.139, 2021, p.9.

10) 이지원, 「케이팝이 만들어가는 인종과 젠더의 새로운 역동성 - 방탄소년단의 흑인 여성 팬덤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9, 36쪽.

마케팅 및 수상의 다양성에 대한 저항을 다루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년 이내의 신인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존 W. 캠벨상은 2019년 수상자 지네트 응(Jeannette Ng)이 수상 연설을 통해 캠벨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¹¹⁾을 계기로 2020년부터 어스타운딩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SF 장르의 출판 산업과 인정 투쟁에 관련된 이러한 제도적 변화 또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SF의 다양성과 대안적 미래주의들의 분출을 SF 세계문학의 맥락으로 살펴본 뒤, 한국의 사변 서사 가운데 특히 과학소설 장르에 집중하여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과 그 방향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II. 글로벌 SF와 대안적 미래주의들의 출현

영미권을 중심으로 하는 SF 장르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분출하고 있다. SF에서 외계인 타자에 가까웠던 여성과 비인간(탈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관심도 이 장르의 심화와 확산에서 다양성의 문화를 강화한다. 소프트 SF는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지식과 논리가 과학소설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SF의 장르적 경계를 확장한다. SF 작가들의 언어적·형식적 실험들과 팬덤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은 장르 범주를 지속적으로 교란한다. 더욱이 과학이 서구적 근대 자연과학이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기후 위기와 멸종의 시대에 서구 과학기술은 반성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서구 근대의 과학이 아닌 다양한 지역, 문화, 시대의 앎과 지혜는 ‘과학’이라는 협소한 단어로 수렴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오늘날 SF 학자

11) 지네트 응은 캠벨을 “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 식민자, 산업가들의 야망을 높이 평가하는 진부한, 불모의, 남성, 백인”으로 비판했다. (Peter Libbey, “John W. Campbell Award Is Renamed After Winner Criticizes Him”, <The New York Times>, 2019.09.01.

(<https://www.nytimes.com/2019/08/28/books/john-w-campbell-award-jeannette-ng.html>, 2022년 9월 22일 접속)

들은 과학소설보다는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¹²⁾이라는 용어를 점점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큰 방향은 한국 SF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¹³⁾

동시대 SF 문화의 변화를 상징하는 한 가지는 문화평론가 마크 데리(Mark Dery)가 제안한 용어 ‘아프로퓨처리즘’(Afrofuturism)이다. 마블 SF 영화 <블랙 팬서>는 아프로퓨처리즘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영화에서 아프리카의 ‘와칸다’는 세계 최빈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막강한 부와 첨단 테크놀로지를 자랑하는 비밀스러운 국가로 그려진다. 이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프로퓨처리즘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가 첨단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예술/문화 운동이다. 백인 중심주의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며 대안적인 정치적 관점이 중요한 이념으로 작동한다.¹⁴⁾ 아프로퓨처리즘은 과학소설, 판타지, 역사의 요소를 결합한 사변적인 상상력으로 흑인의 경험을 탐구한다. 또한 아프로퓨처리즘은 때로 인종, 성별 및 계급에 대한 기존의 관습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전복적인 미학의 운동이다.¹⁵⁾

12) 사변소설이란 용어는 작가, 독자와 팬, 평론가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오락적이고 저급한 장르가 아닌 사색적인 고급 장르로서 과학소설, 들째, 환상소설, 공포소설, 미스터리소설, 과학소설 등 다양한 상상문학을 포괄하는 용어(사변물). 셋째,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너 이야기』처럼, 가상의 과학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비-리얼리즘 소설. 한편, 과학소설 팬 가운데 일부는 사변소설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변소설이란 역어 대신 추론소설이나 사색소설을 택하기도 한다.

13) 대표적인 SF 연구자인 셰릴 빈트 교수 역시 이처럼 언급한다.

14) 노대원, 「제주 미래주의, 제주 설화와 SF가 만나 새로운 꿈을 꾸다」, <제주주의소리>, 2021.09.1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432>, 2022년 9월 21일 접속)

15) 흑인 SF 작가인 새뮤얼 딜레이니는 이렇게 말했다. “과학소설의 가장 강하고 유별난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주변적이라는 점이다. 과학소설은 주변부로부터 작동할 때 - 그리고 작동한다고 주장할 때 -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가장 유효하다. (...) 나는 그것이 사람들의 중심, 즉 흑인 민족주의, 페미니즘, 게이 권리, 기술지향주의 운동, 생태주의 운동 또는 이런 저런 중심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Dery 1994: 189”(Ramon Amaro, “Afrofuturism”, Rosi Braidotti, Maria Hlavajova eds., *Posthuman Glossary*, London: Bloomsbury, 2018, pp.17-20; 번역본: <https://nomadiaphilone.tistory.com/129>, 2022년 9월 22일 접속)

아프로퓨처리즘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체험을 중시한다. 또한 흑인 공동체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새롭고 낙관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서구 과학소설이 백인의 미래를 탐구해 온 반면, 아프로퓨처리즘은 흑인 공동체의 경험과 관점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단지 미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아프로퓨처리즘은 흑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자 서구와 주류에 의해 무시되거나 소외되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아프로퓨처리즘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흑인의 경험이 가치 있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얻는다. 서구 백인의 SF를 비롯해 서사와 문화에서 타자화된 존재로 그려져 왔던 흑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로퓨처리즘은 영화나 만화뿐 아니라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E. Butler)의 SF 문학, 자넬 모네(Janelle Monáe)의 팝 음악 등 많은 예술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경향으로, 21세기에 새로운 문화 운동이 되었다.

최근에 나이저리아계 미국인(Naijamerican) 작가 은네디 오키라포르(Nnedi Okorafor)가 2019년에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안한 ‘아프리칸 미래주의’(Africanfuturism)라는 새로운 용어의 출현으로 아프로퓨처리즘은 더 세분화되었다. “아프리칸 미래주의는 아프리카 대륙과 블랙 디아스포라의 흑인들이 모두 혈통, 정신, 역사,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프로퓨처리즘’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아프리칸 미래주의가 아프리카 문화, 역사, 신화 및 관점에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는 블랙 디아스포라로 분기되며 서구를 특권화하거나 중심에 두지 않는다. 아프리칸 미래주의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관심을 갖고, 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구를 떠나고, 낙관적으로 편향되며, 아프리카 혈통(흑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로 작성되며 가장 먼저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고 있다.”¹⁶⁾

16) 은네디는 와칸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첫 번째 전초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프로퓨처리즘이라면, 와칸다가 이웃 아프리카 국가에 첫 번째 전초 기지를 건설하는

사실 두 미래주의 간의 차이는 작가 스스로 자세히 부연하지 못한다고 할 만큼 미묘하다. 하지만, 이 용어는 아프리카주의를 제한하기보다는 확장한다. 미국에 터를 둔 아프리카인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중심에 둔, 나아가 모든 아프리카인의 미래를 향한 것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SF 미래주의들은 특정 지역과 문화, 인종의 중심성에 저항하며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분화하고 연대하는 현재적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민족과 국가, 부족들이 겪은 디아스포라나 제국주의 지배, 인종 차별, 학살, 혐오 폭력의 경험이 존재하는 세계 역사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미래 이야기가 얼마나 보편적이지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못함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살던, 토착민 인디언들은 바다 건너에서 도착한 유럽인들에 의해 수탈당했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의식으로부터 토착민 예술가들은 이른바 ‘토착/원주민 미래주의’(Indigenous Futurisms)를 통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새롭게 대안적으로 상상해보려고 한다.¹⁷⁾

토착 미래주의는 “과학소설 및 관련 하위 장르의 맥락에서 미래, 과거, 현재의 원주민 관점을 표현하는 예술, 문학, 만화, 게임 및 기타 형태의 미디어로 구성된 운동”¹⁸⁾이다. 이 용어는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토착 민족 연구학과 교수 그레이스 딜런(Grace Dillon)이 제안했다. 딜런은 『구름을 걷다: 토착 과학소설 선집』(Walking the Clouds: Anthology of Indigenous Science Fiction)에서 과학소설이 탈식민화 과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토착민 예술가들은 서구적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정

것이 아프리카인 미래주의라고 예시한다.(Nnedi Okorafor, “Africanfuturism Defined”, <Nnedi’s Wahala Zone Blog>, 2019.10.19.

<http://nnedi.blogspot.com/2019/10/africanfuturism-defined.html>, 2022년 9월 22일 접속)

17) 이 문단은 노대원, 「제주 미래주의, 제주 설화와 SF가 만나 새로운 꿈을 꾸다」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8) Wikipedia, “Indigenous Futurisms”, <Wikipedia>, 3 January 2023, at 14:03 (UTC). https://en.wikipedia.org/wiki/Indigenous_Futurisms, 2023년 1월 7일 접속)

체성과 관점, 문화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미래의 시간만을 다루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포괄하고 연결하는 비선형적 시간이 전개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대량 학살과 환경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적 체험들이 검토되고 새로운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서사의 이러한 시간적 특성은 아프로퓨처리즘이나 다른 대안적 미래주의들의 공통점으로, 서구적-선형적-진보적 시간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태평양 바다 건너 멀리 하와이에서도 이러한 ‘대안적 미래주의’의 상상력이 존재한다. 서구 제국주의적 침탈의 역사가 바로 근현대 하와이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하와이의 토착 예술가들은 그리하여 ‘하와이 미래주의’(Hawaiian Futurism)라는 사변적 상상력을 표출한다. 하와이 예술가 솔로몬 에노스(Solomon Enos)의 그래픽노블 <폴리판타스티카>(Polyfantastica)는 하와이가 서구 제국에 침략받지 않는다는 평행우주 대안 현실(Alternate Realities)이다. 하와이를 비롯해서 폴리네시아 지역의 예술인들은 폴리네시아 미래주의(Polynesian Futurism)¹⁹⁾ 또는 ‘태평양 섬 주민 미래주의’(Pacific Islander Futurism)라고 자신들의 예술을 정의한다.²⁰⁾

아프로퓨처리즘, 아프리카 미래주의를 위시하여 걸프/아랍/중동 미래주의(Gulf, Arab, or Middle Eastern Futurisms), 라틴 미래주의(Latin Futurisms), 하와이 미래주의와 같은 다양한 ‘민족미래주의들’(Ethnofuturisms)²¹⁾,

19) “폴리네시아 미래주의는 폴리네시아 문화와 직면한 특정 문제에 기반한 사변적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을 사용하여 독특한 미래를 창조하고 폴리네시아인과 현대 세계를 분리하는 대중적인 역사화를 거부한다. 폴리네시아 미래주의는 영화나 소설뿐만 아니라 음악, 엔터테인먼트 또는 미래를 다루는 모든 유형의 문화적 관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아프로퓨처리즘 및 토착 미래주의와 가장 유사하다.”(Gregory C. Loui, “What is Polynesian Futurism?”, <Polynesian Futurism: Navigating the Future>. <https://polynesianfuturism.wordpress.com/home/what-is-polynesian-futurism/>, 2021년 9월 13일 접속)

20) 이 문단은 노대원, 「제주 미래주의, 제주 설화와 SF가 만나 새로운 꿈을 꾸다」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1) Armen Avanessian, Mahan Moalemi, “Ethnofuturisms: Findings in Common and Conflicting Futures”, Armen Avanessian and Mahan Moalemi (eds.), *Ethnofuturismen*, Berlin: Merve Verlag, 2018, pp. 8~39.

‘비교 미래주의’(comparative futurism)로 명명되기도 했다.(Mahan Moalemi,

SF 미래주의들의 상상력이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다. 대안적 미래주의들의 출현과 성장은 서구 패권주의와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자 비서구 인종과 민족, 부족, 토착민들의 삶과 문화, 자연과 역사, 영성과 전망에 기초한 미래 기획을 스스로 결정하고 유희적으로 상상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서구 중심의 세계문화이 진정한 세계문화이 아니듯, 리즘 형태로 번져 나가는 미래주의들의 다양체로서의 존재 방식, 혹은 탈영토화와 지속적인 자기 생성/분열과 변주는 오늘날 SF의 세계문학성과 활력을 증명한다.

III. 사변적 아시아와 새로운 문화정치적 패권 경쟁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 미래주의(China Futurisms), 실크펑크(silkpunk)²²⁾, 일본 미래주의(Japanese Futurisms) 등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는 미래주의들이 출현했다. 아시아에서도 테크노-오리엔탈리즘과 서구 중심주의적 SF 문화에 저항하거나 자기 민족과 역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상상하는 문화적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테크노-오리엔탈리즘(techno-orientalism)이란, 데이비드 몰리(David Morley)와 케빈 로빈스(Kevin Robins)가 처음으로 제안한 용어이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서구를 압도하여 오리엔탈리즘적 이분법, 즉 ‘서양-근대-문명-과학’ 대 ‘동양-전근대-비문명-비과학’의 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동양을 과도한 과학기술 발전, 인간

“Toward a Comparative Futurism”, *The Whole Life*, Haus der Kulturen der Welt(HKW), 2022)

22) 실크펑크는 과학소설과 판타지의 하위 장르로, 켄 리우(Ken Liu)가 2015년에 자신의 SF ‘민들레 왕조 연대기’를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창안한 용어이다. 그에 의하면, 실크펑크는 단순히 ‘아시아풍 스팀펑크’나 ‘아시아풍 판타지’가 아니며, 아시아 신화, 역사,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미적 스타일인 실크와 의문을 제기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펑크적인 성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혼합된 장르이다.(Ken Liu, “What is “Silkpunk”?”, <Ken Liu, Writer>. <https://kenliu.name/books/what-is-silkpunk/>, 2023년 03월 25일 접속)

성 상실, 극단적 소비주의 등으로 재현하는 타자화가 지속되었다.²³⁾ 홍콩의 풍경이 디스토피아적 미래처럼 그려진 사이버펍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부터 아시아인은 타자화된 로봇이나 사이보그로 그려지거나 아시아는 부정적 시공간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테크노-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반발과 전복의 시도로 아시아 미래주의(Asian Futurism)의 정치적 상상력, 지정학적 미학이 출발했다.

여러 아시아 미래주의들 가운데 특히 중화미래주의(中华未来主义, Sinofuturism) 또는 중국 미래주의(Chinese Futurism)는 각별히 관심을 요한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주변부 국가로 존재하는 동안, 중국은 어떤 국가가 되었는가? 과거 중국은 테크노-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었고 SF의 주변부였으나, 세계의 공장을 거쳐 현재는 첨단인공지능 기술국가이자 G2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경제대국이자 기술강국이 된 ‘신중국’(neo-China), 다시 말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를 통해서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게 된 중국은 과연 새로운 중국으로 불릴 만하다. “인공지능 가상 비서와 별이는 연애를 그린 SF 영화 『그녀(Her)』(스파이크 존즈 감독, 2013년)의 무대가 된 근미래 로스앤젤레스 풍경 장면이 실제로는 현재의 상하이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은 중화미래주의의 일례로 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²⁴⁾

켄 리우의 SF 단편소설 「천생연분」은 지속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미국 식의 AI 알고리즘 자본주의, 그리고 그 반대 극에서 선 중국 식의 AI 통제 및 감시 사회가 등장한다.²⁵⁾ “그 시절에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하는 활동을 모조리 들어

23) 테크노-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설명은 유상근, 「사이버펍 서울을 넘어 실크펍 제주로: 사이버펍 속 동양의 도시 재현」, 『문화/과학』 2022년 가을호, 2022, 78~79쪽 참조.

24) 미즈시카 카즈노리, 「미즈시마 카즈노리: 오늘의 에세이-〈중화미래주의〉라는 기괴한 상상」, 김효진 역, 〈사물의 풍경〉, 2019.3.20. (<https://blog.daum.net/nanomat/1277>, 2022년 9월 23일 접속); 다음 원문도 참조: 水嶋 一憲, 「中国の「爆速成長」に憧れる〈中華未来主義〉という奇怪な思想」, 〈現代ビジネス〉, 2019.03.08. (<https://gendai.media/articles/-/60262>, 2022년 9월 23일 접속)

25) 노대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때 - SF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 『이화어문논집』 제 54집, 이화어문학회, 2021, 80~81쪽.

다보면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치지 않고 버티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글의 행간을 읽는 방법이라든가, 감청당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방법 같은 걸.”²⁶⁾ 인터넷 감시뿐만 아니라 극도로 발전된 AI 감시 사회로서 중국은 악명 높다.²⁷⁾ 흔히, AI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라고 한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나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엄청난 인구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데이터-석유를 시추한다. 기술철학자 육휘(Yuk Hui)는 기술중심의 경제론이 강조되는 중화미래주의를 “중국의 우주론적 사고에 역행하는 ‘유럽 현대 프로젝트의 가속화’”²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런 식의 중화미래주의는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 고유의 긍정적 미래 기획이 아니라 근대 이후 서구 제국주의를 극단적으로 모방하며 추월하고자 목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리고 국제경제학적으로도, 중국의 미래는 세계 자본주의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2014년, 중국은 중국을 세계 각국과 연결하여 중국식의 경제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제권 구상을 발표했다. 이처럼 중화미래주의는 테크노-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과 동시에 중화주의의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욕망하는 제국주의적 상상력이 동시에 공존하는 위험한 사상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SF의 세계적인 인기를 데올로기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한다. 중국의 기술과학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강조하는 SF 장르를 활용하여 정부는 서사와 이 데올로기를 세계의 청중에게 예술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⁹⁾ 류

26) 켄 리우, 「천생연분」, 장성주 역, 『중이 동물원』, 황금가지, 2018, 61쪽.

27) <중화미래주의>(Sinofuturism)라는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발표했던 로렌스 렉(Lawrence Lek)은 “AI가 수학을 잘하며 사본 생산과 대량의 데이터 학습에 전념하면서 게임, 도박, 격투에 탐닉하는 중국인이라는 상투적인 이미지와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화미래주의의 상장에 어울릴 만하다”고 말한다.(미즈시카 카즈노리, 앞의 글)

28) Virginia L. Conn · Gabriele de Seta, “Sinofuturism(s)”, *Verge: Studies in Global Asias*, 7.2, 2021, p.76.

29) Molly Silk, “The Wandering Earth: A Device for the Propagation of the Chinese Regime’s Desired Space Narratives?”, *SFRA Review*, Vol. 50, No. 2-3, Spring-Summer 2020. (<https://sfrareview.org/2020/09/04/50-2-a13silk/>, 2023년 1월 7일 접속)

츠신(刘慈欣) 소설 원작, 귀판(郭帆) 감독의 블록버스터 Sci-Fi 영화 <유랑 지구>(流浪地球)가 그린, 압도적인 상상력은 지구를 움직이는 중국인, 세계를 구하는 중국인이라는 중화주의의 SF적·영화적 표현이다. 이 영화에 나타나는 중국인 가족의 영웅주의는 시진핑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개념의 구체적인 상상으로 볼 수 있다.³⁰⁾ 중화미래주의는 중국의 이웃 나라이자 중국보다 더 빠른 국가개발을 이룬, 즉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과정을 거쳐 정보화 강국, 선진국을 꿈꾸는 한국 미래주의의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줄 것이다.

중국이라는 정치경제 시스템이 세계적 위상을 얻어가는 동안 중국 SF도 높은 위상을 얻고 있다. 중국계 미국 작가 켄 리우와 중국 작가 류츠신이 휴고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고 있다. 예컨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역시 류츠신이 쓰고 켄 리우가 영역한 『삼체』의 독자였다. 이처럼 중국 SF의 중화미래주의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SF 무대와 기술 비평의 학술적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나 해러웨이의 유명한 말처럼, SF와 현실 간의 구분이 의미 없는 것처럼 중화미래주의 또는 한국의 미래주의 역시 문학과 현실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사실 비서구 SF들의 세계 무대 진출은 각국의 문화정치적 패권 경쟁 및 문화경제적 장려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슈트반 치체리-로나이(Istvan Csicsery-Ronay, Jr.)는 글로벌 SF에 대해 고찰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즉, 중국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소설을 읽고 쓰도록 장려했고, 일본 정부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제작, 번역, 유통을 ‘소프트 파워’ 외교의 핵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도 영화는 친힌두교적 플롯에 미래지향적인 CGI 스펙타클을 수용하고, 한국에서는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들의 플레이가 미디어 경제의 주요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³¹⁾ SF 장르를 두고 아시아 각국이 벌이는 문화정치적

30) 김정수, 「‘유랑지구’의 이율배반: ‘희망’과 ‘희망’ — SF 영화 《유랑지구》와 원작 소설 비교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第67輯, 중국어문학회, 2019, 219~220쪽.

각축전 속에서 ‘대안적 중화미래주의들’(alternative Sinofuturisms)은 서구 중심주의나 백인들의 SF 상상력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기술 경제대국 신중국 자신을 넘어서야만, 즉 스스로를 성찰하고 지양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논평은 글로벌 SF 문학장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한국 SF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IV. 세계문학으로서 한국 SF, 혹은 Korean Futurism

그렇다면 ‘Korean Futurism’, 한국 SF의 대안적 미래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논문은 세계문학장 속의 SF의 역동적 변화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앞서 논의한 글로벌 SF의 동향과 한국 사회문화의 맥락 속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제한적이나마 세계문학 속의 대안적 미래주의로서 한국 SF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하자.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기술 및 산업 자본의 수출국이자 이주 노동력의 수입국”으로 “준제국적(subimperial) 지위”³²⁾에 가깝고, 문화적으로는 영화(〈기생충〉), 음악(BTS와 K-팝), TV 드라마(〈오징어 게임〉 등 넷플릭스 드라마) 등에서 예술적 성취와 더불어 소비 문화산업에서도 최대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조건들은 제국주의의

31) Istvan Csicsery-Ronay, Jr., “What do we mean when we say “global science fiction”? Reflections on a new nexus“, *Science Fiction Studies*, volume 39, 2012; Amar Diwakar, “Will Asian and African sci-fi take over our idea of the future?”, 〈The National〉.

(<https://www.thenationalnews.com/opinion/comment/will-asian-and-african-sci-fi-take-over-our-idea-of-the-future-1.986197>, 2022년 9월 22일 접속)도 참고. 그러나 Diwakar의 기사는 인용 없이 치체리-로나이의 논문 일부를 거의 옮겨왔다.

32) Sunyoung Park, “Decolonizing the future: Postcolonial themes in South Korean science fiction”, *Routledge Handbook of Modern Korean Literature*, Routledge, 2020, p.63.

그림자를 씻어내고 즉, 과거 식민지이자 최빈국의 열등감은 지우고, 서구 중심적 문화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한편, 중화 미래주의의 패권적 성격처럼 새로운 제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더욱이 ‘대안적’ 미래주의라는 것은 서구/제국주의/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자 성찰을 의미한다. 세계화된 자본주의와 기술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포스트휴먼 조건 속에서 비판적 대안을 찾고, 기후 재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성찰과 실천이 요구된다.

한국 대안적 미래주의의 첫 번째 조건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유이다. 듀나의 「화성의 칼」은 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³³⁾와 같은 대체 역사처럼 시작한다. “1931년 7월 7일은 조선 총독 구로즈미 기요타카가 항일결사조직 불새단 단원들에게 암살된 날이다.”³⁴⁾ 그러나 소설은 이내 H. G. 웰스의 『우주전쟁』을 패러디한 것처럼, 화성인들의 지구 침략 사건으로 이어진다. 듀나의 대체 역사/패러디 SF의 스토리세계에서, 화성인이 남기고 간 기계들을 불새단이라는 독립운동 결사단이 입수한다. 이 기계는 조선 총독의 암살에 이용된다. 그 후 영국에서 연구 중이던 화성의 인공 두뇌와 작은 기계가 연결되어 “반제국주의 세계전쟁”이 시작된다. 소설은 반제국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를 곧 냉소적으로 철회해 버린다. 반제국주의 세계전쟁은 1억 명의 희생자를 만들었으나, 세상이 결코 더 좋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성의 칼」은 화성인과 소통하기 위해 우주 부대가 출항하는 장면으로 막 내린다. 화성인들이 ‘코끼리를 사냥하는 야만인’인 우리를 좋아할지 모르겠다며, 영국인들의 메시지를 풍자적으로 언급하며 소설이 끝난다. 듀나의 이 SF에서 제국주의는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민족주의나 반제국주의와 같은 또 다른 저항적 정치 이념 역시 전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듀나 식의 냉소주의는 대안적 상상력에 대한

33) 북거일, 『碑銘을 찾아서: 京城, 쇼우와 62년』, 文學과知性社, 1987. 이 소설에 대한 논의는 노대원, 「대체 역사 SF의 젠더 정치학 — 북거일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비판적 독해」,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23, 2018 참고.

34) 듀나, 「화성의 칼」, 『과학동아』 2021년 9월호, 동아사이언스, 2021.

확고한 의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나의 다른 SF에서도 표출해온 것처럼) 동물권에 관심을 표하는 포스트휴머니즘과 탈인간중심주의 생태 윤리와 연관된다. SF의 대안적 역사와 우주사라는 사변적 상상에도 불구하고 두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민족사의 향방과 상관 없이, 세계사의 향방과 상관 없이, 심지어 외계인의 침략이라는 조건과 상관 없이, 두나에게는 인간 종은 서로 죽이며 전쟁을 일삼고 다른 생명 종을 사냥하는 종이다. 「화성의 칼」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와 제국과 민족의 허구적 이념 추구에 의문을 제기하며 칼을 겨눈다. 완벽한 대안 서사를 제시하지 못 하지만 적어도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거대 서사를 반복하지 않으며 다른 대안적 이념을 모색한다.

Korean Futurism은 그 용어에서 민족-국가의 정체성과 역사, 전통, 문화를 상기시키지만, 그 한계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 상상력은 때로 민족과 국가 내부의 다양한 지역성과 역사성, 정체성을 포괄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갈등들마저 드러낼 수 있다. 레지나 칸유 왕(Regina Kanyu Wang)은 지역화(Loc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 사이의 딜레마를 지닌 중국 SF의 세계화에 대해 논하면서 중국 SF 속의 도시가 ‘지역 세계화’(Locallobalization)로 나아간다고 했다.³⁵⁾ 한국 SF의 상상력에도 글로컬화(glocalization) 혹은 세방화(世方化)가 더욱 요청된다.

이를테면 하와이 미래주의처럼 ‘제주 미래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고종석의 단편소설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³⁶⁾는, 한국의 영토이지만 오랜 역사적 시간 동안 사실상 ‘내부 식민지’로서 정치적, 경제적 수탈을 경험해 왔던 제주도를 그린다. 이 소설에서 제주도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금융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결국 한국에서 독립하게 된다. 이러한 사변적 상상은 대체 역사가 아니라 미래사(future

35) 레지나 칸유 왕, 「중국 사이언스 픽션: 중국에서 세계로,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SF와 지정학적 미학: 제2회 성균 국제 문화연구 연례 포럼, 〈한국어문학 지식공유 위키〉. ([http://www.klbksk.com/PDF/Conference_202112/2-3_발표문_레지나칸유왕\(국문\).pdf](http://www.klbksk.com/PDF/Conference_202112/2-3_발표문_레지나칸유왕(국문).pdf), 2022년 9월 23일 접속)

36) 고종석,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 『플루트의 골짜기』, 알마, 2013.

history)로서, 기존의 역사적 사건을 뒤틀지는 않지만, 중심과 주변의 권력과 위계를 전복하는 힘이 있다. 한국의 탈식민주의 과학소설은 외부의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내부의 식민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은 켄 리우, 왕관유, 후지이 다이요와 같은 외국 작가와 여러 한국 작가들이 참여한 사변소설집으로, ‘아시아 설화 SF’ 소설집을 표방하고 있다. 10편의 소설 가운데 아흔아홉 골 설화, 설문대할망 신화, 서복 전설, 용두암 설화를 비롯한 제주 설화 7종이 소설들의 선행 텍스트로 활용되었다. 제주 지역을 한국 SF의 문학지리학적 거점으로 안착시키고, 제주 신화와 전설을 한국 SF에 도입한 것은 장르의 확장고 심화에 크게 기여한다.³⁷⁾ 이 작품집에 수록된 소설들에서 제주 크로노토프(chronotope)는 한반도의 주변적 장소가 아니라 미래의 시공간이자 우주적 시공간으로 새롭게 상상된다.

예를 들어, “은하항구 모슬포 터미널은 수많은 별자리를 잇는 광자로의 중심지 중 하나다.”³⁸⁾ 홍지운의 SF 단편소설 「아흔아홉의 아수가 죽으면」에서 서귀포 모슬포는 방어가 많이 잡히는 어항(漁港)이 아니라 우주 터미널로 상상된다. 이 소설집에 수록된 몇몇 SF 텍스트들에 나타난 제주의 미래 상상은 기존 한국 문학의 제주 재현 양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이런 SF적인 상상은 아직은 제주의 외적인 지리적 조건, 피상적인 설화 스토리텔링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의 구체적인 삶이나 수탈과 학살의 역사는 지워져 있고, 단지 현시대의 삶과 고통의 역사에서 거리를 두며 해석된 설화가 제주라는 로컬리티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알리바이로 제공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대안적 미래주의들의 관점에서 제주 미래주의를 포함한 Korean Futurism은 아직은 한계가 존재하는 출발점이므로, 앞으로

37) 노대원, 「제주 미래주의, 제주 설화와 SF가 만나 새로운 꿈을 꾸다」.

38) 홍지운, 「아흔아홉의 아수가 죽으면」, 켄 리우 외,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 박산호·이흥이 역, 알마, 2021, 83~84쪽.



그림 1). 김아영의 <수리솔 수중 연구소에서>

더 많은 시도와 상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안적 미래주의들은 영미권 SF이나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정치적 비판 의식은 물론 포스트휴먼 조건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상상력과 서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 아티스트 김아영의 <수리솔 수중 연구소에서>(At the Surisol Underwater Lab)³⁹⁾는 현대 한국의 포스트휴먼 조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사변적인 상상을 펼치는 미디어 아트 영상이다. 팬데믹 이후 근미래의 부산 기장을 스토리세계(storyworld)로 삼았다. 김아영의 지적처럼, 아프로퓨처리즘의 대표작 <블랙 팬서>에서 아시아인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산은 그저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활극의 배경”⁴⁰⁾으로 추락하고 만다. 아프로퓨처리즘 가운데 가장 명성을 얻은 텍스트가 어떤 측면에서 이미 주류화되어버린 것이다. 김아영의 사변서사 <수리솔 수중 연구소에서>는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 독해로 시작된다.

여기서 부산은 단순히 풍경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공간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오륙도와 마린시티는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특히, 마린시티(Marine City)는 본래 수영만 매립지로 불리던 상업지로 해안가를 따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들어선 주거단지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마린시티는 테크노 오리엔탈리즘과 아시아 미래주의를 시각화하기에 적절해 보이는 관습적인 장소로 볼 수 있다.

39) 김아영 감독, <수리솔 수중 연구소에서>, 부산 비엔날레, 2020.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김아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40) 김아영,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 매혹, 공포, 혐오의 아시아 너머」, <한국학 웹진>, 2022.02.05. (<https://www.webzineriks.or.kr/post/테크노-오리엔탈리즘-매혹-공포-혐오의-아시아-너머-김아영>, 2022년 9월 23일 접속)

물론, <수리솔 수중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클리셰를 전유하되, 외형적인 측면에서 부산의 SF 이미지를 피상적으로 전시하지 않는다. 영상 시작 지점에 펼쳐지는 오륙도와 그 앞바다의 자연 풍경은 그 점을 분명히 한다. 부산은 인류세의, 전지구적 기후 위기와 희망이 교차하는 구체적 시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표제에서 나타나는 ‘수리솔 수중 연구소’는 다름 아니라 바로 다시마를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를 연구하는 곳이다.⁴¹⁾ 오륙도 인근 바다에 위치하는 것도 아시아 미래주의의 지정학이자 생태지리학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해조류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열대우림 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시마는 실제로 기후 변화의 위기와 재난 속에서 최첨단 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자연적으로 탄소를 흡수한 다시마를 심해로 가라앉혀 탄소를 격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⁴²⁾ 해초 연료가 세계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었다는 외삽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보다는 비판적 에너지 인문학의 상상력에 더 가깝다.

<수리솔 수중 연구소에서>에 나타난 해양 생태 SF의 상상력은 ‘솔라펑크’(solarpunk)라는 SF의 새로운 하위장르로서 설명할 수 있다. 솔라펑크는 인류가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및 오염에 중점을 둔 주요 현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면 미래가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하는 장르이자 예

41)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의 가속화 후,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된 사회, 거대 해조류(macro-algae) 다시마를 발효해 생산하는 바이오연료-해조류 연료가 세계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된 어느 사회를 상상한다. 한국 부산 기장으로부터 오륙도 근해에 이르는 긴 벨트를 따라 바이오매스 타운이 형성되었고, 다시마 양식과 수질, 해류, 바이오매스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연구소인 수리솔 수중 연구소(Surisol Underwater Lab)가 오륙도 부근 해저에 자리잡고 있다는 설정이다. (부산 근해의 다시마는 19세기부터 그 품질과 수확량이 널리 알려져 있다.)”(Ayoung Kim, “At the Surisol Underwater Lab”, <Ayoung Kim>).

<http://ayoungkim.com/wp/3col/at-the-surisol-underwater-lab-2020>, 2022년 1월 19일 접속)

42) James Temple, 「다시마 이용한 ‘탄소 포집’ 기술의 성공 조건」, <MIT Technology Review>, 2021년 10월 15일.

(<https://www.technologyreview.kr/kelp-carbon-removal-seaweed-sinking-climate-change/>, 2023년 4월 2일 접속)

술 운동이다. 인류세에 대한 대안적 서사를 보여주는 솔라펑크는 SF 하위 장르의 하나만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SF 팬덤의 실천 공동체와 시민적 상상력(civic imagination)⁴³⁾의 가능성으로 보아야 한다. 솔라펑크와 같은 새로운(생성 중인) 사변적 장르는 계토화된 일부 SF 작가와 팬덤을 위한 관심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솔라펑크로 현실화하자는 시민 예술 운동으로 볼 수 있다.⁴⁴⁾

〈수리술 수중 연구소에서〉의 등장인물들은 난민과 인공지능 로봇과 드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마’와 같은 비인간 존재들이다. 인간과 비인간, 혹은 인간 이하로 취급 받는 포스트휴먼의 서사인 것이다. 이 서사에서 예멘 난민 출신의 여성 연구원 소하일라와 인공지능 수리술, 자동 로봇 드론 부이(Buoys, 부표) 등은 미래의 한국인으로 상상된다. 이들은 비인간, 비국민, 비남성으로서 배제되고 열등한 타자 존재로 간주되었으나 이 서사에서는 주인공으로 격상된다. 또한 이들은 미래의 지구적 생태 위기에 맞서 동료로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들은 공존과 공생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수리술 수중 연구소에서〉는 ‘팬데믹 픽션’(pandemic fiction)을 표방했다. 이 서사에서 가장 갈등 상황으로 재현되는 것은 팬데믹 시기의 트라우마적인 기억이다. 소하일라의 기억 속에서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잊힌 존재가 되어 마스크 대란과 실업, 자발적인 공동체의 봉쇄 등 신데믹(syndemic)의 고통을 겪는 예멘 난민들을 그렸다. 2018

43) ‘시민적 상상력’이란,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상상력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진정한 간극을 인식하고 세계를 건설하는 대안적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 문화, 기술, 정책 등이 융합되고 현실적 삶을 바꾸는 것을 중시한다. “주변 세계를 다시 상상하도록 해주는 사변소설의 은유를 폭넓게 확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헨리 젠킨스, 전혜진 역, 오영진 감수, 『사변소설, 팬 액티비즘(fan activism), 시민적 상상력: ‘되돌아보기’에서 솔라펑크까지 / 헨리 젠킨스, 〈웹진 한국연구〉, 2022년 2월 21일.

<https://www.webzineriks.or.kr/post/사변소설-팬-액티비즘-fan-activism-시민적-상상력-솔라펑크-되돌아보기-헨리-젠킨스>, 2022년 2월 21일 접속)

44) Saint Sage, “How We Can Make Solarpunk A Reality (ft. @Our Changing Climate)”, 〈YouTube〉, 2021. 9. 25..

(https://www.youtube.com/watch?v=u-JvyfZVkiM&list=PLGD6AlEx5L7dO-b2HpXPqAX_F3egyOYPU&index=1&t=504s, 2022년 2월 28일 접속)

년 제주도를 통해 입항한 예멘 난민인 23세의 소하일라는 공동체 봉쇄가 두 달째 되던 날, 참을 수 없어 공동체 밖으로 나간다. 그녀는 확진자 감염병동에 들어가 자가감염을 시도하여, 확진된다. 격리와 치료 끝에 그녀는 항체를 제공하기로 한다. 팬데믹 시기의 그녀의 행적은 영웅주의의 발로이기보다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탈출구를 찾는 과정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된다. 이 일탈이자 희생은 그녀가 난민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동체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수리솔 수중 연구소 역시 기후 위기 시대의 일종의 피난처이자 대안적 희망을 위한 탈출구처럼 해석될 수 있다. 수리솔 수중 연구소는 어두운 바다 밑에 위치해 있으나, 마린시티의 저 휘황찬란하지만 생명력 없는 사이버펄크 디스토피아 스타일의 스카이라인과 대조된다. SF가 이 시대의 리얼리즘으로 작동한다면, 이 서사에서는 대안적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SF의 대안적 미래주의는 아직 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몇몇 사례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 조건과 가능성을 탐구해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 SF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며 양적, 질적 성장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포스트휴머니즘,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와 깊이 상호 협력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은 한국 SF의 대안적 미래주의의 확산과 긍정적 미래를 예견해 보도록 한다. 차토파디아이는 ‘미래주의자들의 연대’(solidarity across futurisms)가 필요하며, 이러한 운동을 ‘공동미래들’(cofutures)로 명명한다. 미래주의들은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속을 요구한다는 것이다.⁴⁵⁾ 브라이도티 역시 포스트휴먼 주체를 “우리는-(모두)-여기-함께-있지만-우리는-하나가-아니고-같지-않다”⁴⁶⁾라는 슬로건으로 제시한다. 세계 SF는 이제야 다양성과 연대를 위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 SF 역시 대안적 미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45) Bodhisattva Chattopadhyay, “The Pandemic that was Always Here, and Afterward: From Futures to CoFutures”, in Anindita Banerjee · Sherryl Vint, “Thinking Through the Pandemic: A Symposium,” *Science Fiction Studies*, Vol. 47, No. 3, 2020.

46) Rosi Braidotti, *Posthuman knowledge*, Polity Press, 2019, Chap. 2. (e-book)

참고문헌

1. 텍스트

- 고종석,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 『플루트의 골짜기』, 알마, 2013.
- 귀관 감독, 류츠신 원작, 〈유랑지구〉(流浪地球), 中国电影股份有限公司, 2019.
- 김아영 감독, 〈수리술 수증 연구소에서〉, 부산 비엔날레, 2020.
- 듀나, 「화성의 칼」, 『과학동아』 2021년 9월호, 동아사이언스, 2021.
- 라이언 쿠글러 감독, 〈블랙 팬서〉, 마블 스튜디오, 2018.
- 복거일, 『碑銘을 찾아서: 京城, 소우와 62년』, 文學과知性社, 1987.
- 스파이크 존즈 감독, 〈그녀〉(Her), 안나푸르나 픽처스, 2013.
- 켄 리우 외,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 박산호 · 이흥이 역, 알마, 2021.
- _____, 「천생연분」, 장성주 역, 『종이 동물원』, 황금가지, 2018.

2. 논문과 단행본

-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 김정수, 「'유랑지구'의 이윤배반: '허망'과 '희망' — SF 영화 《유랑지구》와 원작 소설 비교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第67輯, 중국어문학회, 2019, 201~222쪽.
- 노대원,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세계라는 타자와의 대화를 위하여」, 『우리말글』 제71집, 우리말글학회, 2016, 411~434쪽.
- _____, 「대체 역사 SF의 젠더 정치학 — 복거일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비판적 독해」,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23, 2018, 47~70쪽.
- _____, 「길 위의 포스트휴먼 — 박미하일 소설 『예올리』의 포스트휴먼 디아스포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257~282쪽.
- _____,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때 — SF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서사」, 『이화어문논집』 제 54집, 이화어문학회, 2021, 63~87쪽.
- _____, 「포스트휴먼 (인)문학과 SF의 사변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제200호, 국어국문학회, 2022, 113~136쪽.
- _____, 「황인경,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93~120쪽.
- 레지나 칸유 왕, 「중국 사이언스 픽션: 중국에서 세계로,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SF와 지정학적 미학: 제2회 성균 국제 문화연구 연례 포럼, 〈한국어문학 지식공유 위키〉.
(http://www.klbbksk.com/PDF/Conference_202112/2-3_발표문_레지)

- 나칸유왕(국문).pdf, 2022년 9월 23일 접속)
- 로지 브라이도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 세릴 빈트·마크 볼드, 『SF 연대기』, 송경아 역, 허블, 2021.
- 유상근, 「미래로서의 동양, 동양의 미래: 미국 사이언스픽션과 테크노-오리엔탈리즘」, 『다시 개벽』 제2호, 2021, 18~35쪽.
- _____, 「사이버펄크 서울을 넘어 실크펄크 제주로: 사이버펄크 속 동양의 도시 재현」, 『문화/과학』, 2022년 가을호, 2022, 78~79쪽.
- 이지원, 「케이팝이 만들어가는 인종과 젠더의 새로운 역동성 - 방탄소년단의 흑인 여성 팬덤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9, 1~115쪽.
- Armen Avanesian, Mahan Moalemi, “Ethnofuturisms: Findings in Common and Conflicting Futures”, Armen Avanesian and Mahan Moalemi (eds.), *Ethnofuturismen*, Berlin: Merve Verlag, 2018, pp.8~39.
- Bodhisattva Chattopadhyay, “Manifestos of Futurisms”, *Foundatio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Science Fiction*, 50.139, 2021, pp.8~23.
- _____, “The Pandemic that was Always Here, and Afterward: From Futures to CoFutures”, in Anindita Banerjee · Sherryl Vint, “Thinking Through the Pandemic: A Symposium,” *Science Fiction Studies*, Vol. 47, No. 3, 2020, pp.338~340.
- Istvan Csicsery-Ronay, Jr., “What do we mean when we say “global science fiction”? Reflections on a new nexus”, *Science Fiction Studies*, volume 39, 2012, pp.478~494.
- Mahan Moalemi, “Toward a Comparative Futurism”, *The Whole Life*, Haus der Kulturen der Welt(HKW), May 2022.
- Mengtian Sun, “World Literature a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hinese Science Fiction”, *SFRA Review*, vol. 51, no. 2 (Symposium: Chinese SF and the World), 2021.
(<https://sfrareview.org/2021/04/21/sinofuturisms-world-literature/>, 2022년 9월 22일 접속)
- Molly Silk, “The Wandering Earth: A Device for the Propagation of the Chinese Regime’s Desired Space Narratives?”, *SFRA Review*, Vol. 50, No. 2-3, Spring-Summer 2020.
(<https://sfrareview.org/2020/09/04/50-2-a13silk/>, 2023년 1월 7일 접속)

- Ramon Amaro, "Afrofuturism", Rosi Braidotti, Maria Hlavajova eds., *Posthuman Glossary*, London: Bloomsbury, 2018, pp.17~20. (번역본: <https://nomadiaphilonote.tistory.com/129>, 2022년 9월 22일 접속)
- Rosi Braidotti, *Posthuman knowledge*, Polity Press, 2019. (e-book)
- Sunyoung Park, "Decolonizing the future: Postcolonial themes in South Korean science fiction", *Routledge Handbook of Modern Korean Literature*, Routledge, 2020, pp.56~67.
- Virginia L. Conn · Gabriele de Seta, "Sinofuturism(s)", *Verge: Studies in Global Asias*, 7.2, 2021, pp.74~99.
- _____, "Sinofuturism and Chinese Science Fiction: An Introduction to the Alternative Sinofuturisms (中华未来主义) Special Issue", *SFRA Review*, vol.50, no.2-3, Spring-Summer 2020. (<https://sfrareview.org/2020/09/04/50-2-a0conn/>, 2022년 9월 23일 접속)

3. 웹사이트 문헌

- 김아영,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 매혹, 공포, 혐오의 아시아 너머」, 〈한국학 웹진〉, 2022.02.05. (<https://www.webzineriks.or.kr/post/테크노-오리엔탈리즘-매혹-공포-혐오의-아시아-너머-김아영>, 2022년 9월 23일 접속)
- 노대원, 「제주 미래주의, 제주 설화와 SF가 만나 새로운 꿈을 꾸다」, 〈제주의소리〉, 2021.09.1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432>, 2022년 9월 21일 접속)
- 미즈시카 카즈노리, 「미즈시마 카즈노리: 오늘의 에세이-〈중화미래주의〉라는 기괴한 사상」, 김효진 역, 〈사물의 풍경〉, 2019.3.20. (<https://blog.daum.net/nanomat/1277>, 2022년 9월 23일 접속) / 水嶋 一憲, 「中国の「爆速成長」に憧れる〈中華未来主義〉という奇怪な思想」, 〈現代ビジネス〉, 2019.03.08. (<https://gendai.media/articles/-/60262>, 2022년 9월 23일 접속)
- 헨리 젠킨스, 전해진 역, 오영진 감수, 「사변소설, 팬 액티비즘(fan activism), 시민적 상상력: '되돌아보기'에서 솔라펍크까지 / 헨리 젠킨스」, 〈웹진 한국연구〉, 2022년 2월 21일. (<https://www.webzineriks.or.kr/post/사변소설-팬-액티비즘-fan-activism-시민적-상상력-솔라펍크-되돌아보기-헨>

리-젠킨스, 2022년 2월 21일 접속)

〈CoFutures〉 (<https://cofutures.org>, 2023년 1월 7일 접속)

Amar Diwakar, "Will Asian and African sci-fi take over our idea of the future?", 〈The National〉.

(<https://www.thenationalnews.com/opinion/comment/will-asian-and-african-sci-fi-take-over-our-idea-of-the-future-1.986197>, 2022년 9월 22일 접속)

Ayoung Kim, "At the Surisol Underwater Lab", 〈Ayoung Kim〉.

(<http://ayoungkim.com/wp/3col/at-the-surisol-underwater-lab-2020>, 2022년 1월 19일 접속)

Extra Credits, "John W. Campbell Reshapes Sci-Fi - Pulp! Astounding Stories - Extra Sci Fi", 〈youtube〉, 2018.05.16.

(<https://www.youtube.com/watch?v=Ctpvd2VvukQ>, 2022년 9월 23일 접속)

Gregory C. Loui, "What is Polynesian Futurism?", 〈Polynesian Futurism: Navigating the Future〉.

(<https://polynesianfuturism.wordpress.com/home/what-is-polynesian-futurism/>, 2021년 9월 13일 접속)

James Temple, 「다시마 이용한 '탄소 포집' 기술의 성공 조건」, 〈MIT Technology Review〉, 2021년 10월 15일.

(<https://www.technologyreview.kr/kelp-carbon-removal-seaweed-sinking-climate-change/>, 2023년 4월 2일 접속)

Julian C. Chambliss, "아프로퓨처리즘(Afrofuturism)이란?: 그 기원과 의미 그리고 의의", Zigzag 역, 〈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티스토리〉, 2022.06.24.

(<https://zigzagworld.tistory.com/630> 원문:

<https://theconversation.com/what-is-afrofuturism-an-english-professor-explains-183707>, 2022년 9월 23일 접속)

Ken Liu, "What is "Silkpunk"?", 〈Ken Liu, Writer〉.

(<https://kenliu.name/books/what-is-silkpunk/>, 2023년 3월 25일 접속)

Nnedi Okorafor, "Africanfuturism Defined", 〈Nnedi's Wahala Zone Blog〉, 2019.10.19.<http://nnedi.blogspot.com/2019/10/africanfuturism-defined.html>, 2022년 9월 22일 접속)

Peter Libbey, "John W. Campbell Award Is Renamed After Winner Criticizes Him", 〈The New York Times〉, 2019.09.01.

(<https://www.nytimes.com/2019/08/28/books/john-w-campbell-award-jeanette-ng.html>, 2022년 9월 22일 접속)

Rasheedah Phillips, “블랙 퀴텀 퓨처리즘(BQF): 식민과 주인의 지도와 시계 해체하기”, Zigzag 역, 〈Zigzag의 세계를 여는 창: 티스토리〉, 2022.07.05.

(<https://zigzagworld.tistory.com/644?category=930817>)

원문: https://en.wikipedia.org/wiki/Indigenous_Futurisms, 2022년 9월 23일 접속)

Saint Sage, “How We Can Make Solarpunk A Reality (ft. @Our Changing Climate)”, 〈YouTube〉, 2021. 9. 25..

(https://www.youtube.com/watch?v=u-JvyfZVkiM&list=PLGD6AlEx5L7dOb2HpXPqAX_F3egy0YPU&index=1&t=504s, 2022년 2월 28일 접속)

Wikipedia, “Indigenous Futurisms”, 〈Wikipedia〉, 3 January 2023, at 14:03 (UTC). https://en.wikipedia.org/wiki/Indigenous_Futurisms, 2023년 1월 7일 접속)

Abstract

Re-dreaming about Futures: Alternative Futurisms in Korean and Global Science Fiction

Noh, Dae-won (J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paper examines the diversity of global Science Fiction and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futurism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 the context of SF world literature. The Anglo-American-centered science fiction genre has now erupted into “alternative futurisms” in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Afrofuturism, Gulf Futurism, and Hawaiian Futurism. In Asia, Asian futurism emerged as a resistance to and subversion of techno-orientalism. Chinese futurism(Sinofuturism), on the other hand, is a criticism of Western imperialism and is related to the hegemonic competition of China, which has grown into a technological economic power.

Finally, by examining various alternative futurisms around the world, this paper proposes the concept of “Korean futurism”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F, the specificity of Korean society, and its relationship with global SF. Korean Futurism is a critique of imperialism and anthropocentric imagination, and more delicate glocalization such as “Jeju Futurism” is called for. Alternative futurism in Korean SF can also emerge in the form of new speculative fiction subgenres/movements, such as ecological SF and solarpunk, as a response to the Anthropocene and climate crisis. SF futurisms are creating a future of solidarity while respecting differences and diversity.

Keywords: Alternative Futurisms, Speculative Fiction, Afrofuturism, Asian Futurism, Sinofuturism, Korean Futurism, Johng-Seok Koh, Djuna, A-Young Kim, Posthuman, Anthropocene, Ecological Science Fiction, Solarpunk

논문 투고일: 2023년 03월 25일
심사 완료일: 2023년 04월 21일
계재 확정일: 2023년 04월 25일